



# 대한민국 고객만족 혁신기업 · 혁신인물 & 품질만족지수 1위 브랜드대상

본 기획은 앞선 기술력과 품질력,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고 고객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는 혁신기업, 인물을 발굴하여 널리 소개하고자 한다.

## 아랑고고장구 K-탑7, 세종문화회관서 장구의 새로운 무대 언어 선보인다

사단법인한국고고장구진흥원 | 혁신리더 · 장구공연 부문



조승현 이사장

아랑고고장구 K-탑7이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2026 대국민통합 신년 음악회 - 우리는 이제나 더 나은 세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제7회 정기연주회로, 아르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주최·주관하는 대규모 종합 예술 무대다. 클래식과 국악, 합창, 뮤지컬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이번 무대는 장르 간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 구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연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7번과 교향곡 9번 4악장 '환희의 송가' 편곡 연주를 중심으로 미라클보이스양상철, 아르셀 뮤지컬 플레이어스, 연합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지휘는 윤학진 예술감독이 맡았으며, 소리꾼 장사익과 바리톤 고성현이 특별 출연해 음악적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아랑고고장구 K-탑7은 이번 무대에서 전통 장구 연주의 틀을 넘어선 독자적인 집단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아랑고고장구의 연주법은 즉흥성과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장단마다 장구 타격 위치와 손의 각도, 보폭과 회전동선, 시선 처리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수입 동작을 기반으로 한다. 연주와 안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구조로 작동하며, 소리와 움직임, 공간이 동시에 완성되는



무대 언어를 구현한다.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추억의 7080 축제'에서는 약 2,000명이 참여한 아랑고고장구 플래시몹이 펼쳐져 장구가 만들어내는 집단 리듬과 에너지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에는 K-트롯 가수 신인선과의 협업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도 높아졌다. MBC '트롯 챔피언' 무대에서 국악 장단에 라틴 플라멩고 리듬과 동작을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고, 이 무대에 아랑고고장구가 참여해 국내 최초로 '플라멩고 트롯 장구댄스'라는 새로운 공연 형식을 제시했다.

아랑고고장구 K-탑7은 1만 명이 넘는 회원 가운데 엄선된 정예 멤버들로 구성된 팀으로, 장구 가락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트롯과 클래식, 대중음악 등 4/4박자 음악 전반과 결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장구가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공연 콘텐트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아랑고고장구는 사단법인 한국고고장구진흥원 조승현 대표가 장구 가락의 대중화를 목표로 개발한 연주 방식이다. 조 대표는 20여 년간의 연구와 수련을 통해 연주법과 인문체계를 완성했으며, '아랑'은 그의 호, '고고(Go, Go)'는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아랑고고장구는 유튜브 '아랑고고장구 따라하기' 영상이 조회 수 44만 회를 넘길 정도로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으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강·여가 문화 콘텐츠로도 확산되고 있다.

## 기능성 웰니스 제품으로 '생활 속 음양 균형' 제시

약손바이오 | 혁신리더 · 안마지압 부문



조영원 대표

대전시 서구 가수원로에 있는 약손 안마지압원은 겨울철이면 찬 공기로 근육이 수축하고 혈류가 저하되면서 목·어깨 통증과 한랭성 근육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의 안마 지압은 경혈·경락·근육·신경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고 인체의 자연 회복력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둔다. 허한 곳은 보하고 실한 곳은 덜어내 균형을 맞추는 한의학의 보사법

즉 음양 조화의 원리가 핵심이다. 조 대표의 삶은 22년 전 큰 전환점을 맞았다. 48세에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그는 안마지압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촉각과 청각이 더욱 발달하면서 보다 정교한 촉진과 경험적 판단이 가능해졌다.

그는 "안마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고민은 '약손 기능성 목걸이' 개발로 이어졌다. 5년간의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음양의 균형 개념을 일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웨어러블 형태로 구현했다.

해당 제품은 디자인 등록과 상표 등록을 마쳤으며, '개인의 사상체질에 기반을 둔 건강관리 정보 제공 시스템'이라는 명칭의 원리 특허도 확보했다. 약손 기능성 목걸이는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기혈 순환 이론을 현대인의 생활 환경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동양사상에서는 백화혈을 통해 하

늘의 양기(천기)를 받아들이고, 옹천혈을 통해 땅의 음기(지기)를 받아 인체 내에서 조화를 이룰 때 두한족열, 즉 머리는 맑고, 발은 따뜻한 상태가 유지된다고 본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노화로 음양의 균형이 무너지면 신체에 열이 몰리고 하체는 차가워지며 각종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약손 기능성 목걸이는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삼각형 구조의 디자인과 금속 구조 설계를 적용, 기운의 순환을 돕는 개념으로 설계됐다. 서지컬 소재를 사용해 남녀노소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착용 전 검사기거나 오링 테스트를 통해 음·양 체질을 구분한 뒤, 체질에 따라 착용 방향을 달리해 불균형 완화를 돕는 구조다.

조 대표는 "이 제품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의 흐름을 점검하고 균형을 되찾는 도구"라고



설명한다. 약손 기능성 목걸이는 두한족열 유지를 기본 개념으로, 일상 속 컨디션 관리와 목·어깨 결림 완화, 피로 관리 등에 도움을 주는 웰니스 제품으로 설계됐다. 일부 체육인들 사이에서는 착용 후 활동 지속력 변화에 대한 체험담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과 세종 지역에 대리점을 운영 중이며, 웰니스 시장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와 은퇴 후 제2의 사업을 모색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총판·지점·대리점 모집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체험과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 장기 표류 끝에 본궤도 진입

중계본동주택재개발사업 | 혁신리더 · 주택재개발사업 부문



황진숙 위원장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일명 104마을)'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의 표류 끝에 본궤도에 오르며 서울 주거정비의 새로운 이정표로 주목받고 있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무허가 철거민들이 불안한 자락에 집단 이주하며 형성된 곳으로, 수도와 전기조차 없

이 생활을 이어가던 대표적인 달동네였다. 1980년대 이후 생활 여건이 일부 개선됐지만 수십 년간 재개발이 지연됐다.

2016년 12월 제2기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진숙 위원장은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고, SH공사를 시행자로 선정하며 공공성을 강화했다.

앞서 2012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기존의 분양·임대 아파트 분리 방식에서 벗어나 분양아파트와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주거지 보전사업으로 사업성을 향상 시킨 바 있다.

2기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주거지보전사업으로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022년 도급계약 체결에 이어 2024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하며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돌

입했다. 관리처분후, 거주민의 이주기간중, 토지 등 소유자 95%의 동의를 바탕으로 주거지 보전사업을 철저히 분양·임대 혼합 방식의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기간 연장 없이 또한번 사업성을 향상시켰다.

황 위원장은 정식 이주공고 이전인 2019년부터 조기 이주를 추진했다. 순환경제 임대아파트를 활용해 불안정 가옥에서의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했고, 대책·비대책 세입자 모두에게 이사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주민 동의를 통해 마련했다.

그 결과 2025년 5월 부분철거를 시작할 수 있었고, 같은 해 11월까지 이주하면서 주택가주민 모두 강제집행 없이 안전하게 이주를 완료했다. 총 1,100여 개 건축물과 2,000여 명

에 이르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한 점은 재개발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백사마을은 향후 지하 4층~지상 35층, 26개 동, 총 3,178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기존 계획보다 74세대가 늘어난 규모로,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 단지명은 '네이처 시티 자이'로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황진숙 위원장은 "술한 난관 속에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고급자리를 선물하겠다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고, 새로운 마을 하나를 탄생시킨다는 것이 가슴 벅찬 일이다"라며 토지 등 소유자의 전폭적인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 라고 밝혔다.

## K-혈관 건강 솔루션, 예방의학으로 세계 시장을 두드린다

삼성컴퍼니 | 혁신리더 · 건강강원 부문



최기흥 대표

을 묻자 삼성컴퍼니 최기흥 대표는 단호하게 답한다. "혈관입니다. 모든 병은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한 문장은 최 대표가 20년 넘게 이어온 강연과 연구, 그리고 제품 개발의 출발점이자 핵심 철학이다. 그는 자신을 의사나 치료자가 아닌 '질병 예방 강연자'라고 소개한다. 전국을 돌며 7,000회가 넘는 강

연에서 그가 반복해 온 메시지는 분명하다. 질병이 발생한 뒤 치료에 의존하기보다, 혈관 환경을 개선해 병을 미리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컴퍼니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혈관 건강 솔루션을 통해 '치료를 넘어 삶의 변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혈관 개선 건강기능식품 '혈관 통일', 특허 제품 '순환 365', 산소 캡슐 제품 '오투백(O2100)' 등은 이 같은 방향성의 결과물이다.

특히 '혈관 통일'은 유유제약과 협력해 개발한 제품으로, 자연 유래 원료를 기반으로 혈행 개선 기능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순환 365는 황칠, 마늘, 여주, 메밀, 콩 등을 발효해 만든 발효한 제품으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 대표는 혈관을 "인체의 기반

시설'에 비유한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인 혈관이 막히거나 탄력을 잃으면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병이 생긴 뒤에는 완치가 어렵다. 그래서 약이 아닌 예방을 선택했다"며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 식습관 개선에 더해 필요에 따라 자연 유래 건강기능식품을 활용하는 생활 루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의 주장은 질병이 생긴 이후 약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혈관 상태를 개선해 약에 덜 의존하는 몸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실제로 그의 강연을 접한 이들 가운데 의료진 상담을 병행하며 복용 약을 줄이거나 건강 수치 개선을 경험했다는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스마트 솔더링으로 제조 공정 혁신... 품질·신뢰로 성장 가속

파워오토시스템㈜ | 고객만족 · 스마트팩토리 부문



김정환 대표

자동화 설비 전문기업 파워오토시스템(주) 대표 김정환은 용접·납땜 공정의 품질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셀렉트브 솔더링과 레이저 솔더링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핵심 제품인 '스마트 솔더링 솔루션'은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공정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AI·IoT 기반의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과 정밀 제어 기능을 통해, 다품종 소량

생산 환경에서도 균일한 솔더링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설비는 △정밀 온도 제어 △자동 보정 시스템 △스마트 데이터 생성 기능 △전자식 펌프 등을 탑재해 작업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며, 불량률 감소와 재작업 최소화, 제조 원가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라인에 높은 호환성으로 도입 부담을 줄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 한 설계 구조와 최신편제 기술을 탑재한 고성능을 기반으로 설비 운영의 자동화를 통해 인력 의존도를 크게 낮춘 것이 강점이다. 특히 파워오토시스템의 설비는 단순한 자동화 장비가 아닌 '스마트 공정 관리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설비 가동 상태와 품질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공정 최적화를 지원하며, 원격 관리 기능을 통해 설비 유지보수 시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전문 서비스 인력을 통한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도 경쟁력이다. 설비 도입 이후에도 맞춤형 기술 지원과 지속적인 공정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며, 단순한 납품 관계를 넘어 고객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파워오토시스템은 오는 2026년 4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SSPA(스마트 SMT & PCB 어셈블리)' 전시회에 참가해 차세대 스마트 솔더링 설비와 자동화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6년 11월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 로봇·자동화 전문 전시회인 '로보월드(ROBOTWORLD)' 2026에도 참가해, 첨단 자동화 솔루션과 스마트 팩토리 구현 역량을 국내외 시장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정환 대표는 "제조 현장의 진정한 경쟁력은 첨단 기술과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솔루션 고도화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제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화 설비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I와 인간 사이... 김소윤 원장이 본 의료 패러다임의 이동

연세대학교의료법윤리위원회 | 혁신리더 · 의료법윤리위원회 부문



김소윤 원장

그는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의 대상"이라며 의료의 방향은 기술 발전 속도가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기준과 가치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김 원장은 최근 '2060년, 30년 후 대한민국 의료'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의료정책연구회와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미래 의료 기술 전망이 아닌 정책과 윤리의 관점에서 조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김 원장은 미래 의료정책이 현재의 수요나 직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통계와 데이터, 질병 구조 변화에 근거한 중장기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전체 정보 기반 정밀의료와 상시적 건강관리 시스템의 확산은 질병을 치료 대상에서 관리 가능한 변수로 바꾸고 있으며, 치료 중심 의료는 예방과 예측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의료의 역할도 바꾸고 있다. AI는 진단 보조를 넘어 건강

예측과 생활습관 관리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김 원장은 이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이 직접 치료보다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인간적 돌봄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이 이끄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위원회원은 의학적 행위 전반에 대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김 원장은 의료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견제하고 방향을 제시할 윤리적 기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강조해 왔다.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보건정책 전문가인 김 원장은 보건복지부를 거쳐 학계에 몸담으며 환자 안전과 의료 윤리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환자의 치료와 돌봄을 위한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름은 운명을 바꾸는 언어"... '이름분석학'으로 성명학의 지평 넓혀

황시현이름연구원 | 혁신리더 · 이름연구원 부문



황시현 원장

결합해 이름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특히 개명 전후 내담자들의 삶의 변화를 장기간 추적하며 축적한 20만~50만 명 규모의 상담 데이터를 토대로, 이름의 작용 원리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성명학이 사주에 맞

춰 한자의 뜻과 획수로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는 방식이었다면, 황 원장은 이름 자체가 가진 에너지에 주목한다. 한글과 한자의 획순, 수리 조합, 주역 괘 운뿐 아니라 실제로 불리고 사용되는 '이름 소리'의 파동이 개인의 사고와 행동,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핵심 분석 요소로 삼는다. 황 원장은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뇌에 입력되는 언어 자극"이라며 "사람은 자신이 불리는 소리와 끊임없이 공명하며 살아간다"고 말한다. 그는 이 공명 원리를 토대로 이름을 설계하는 역할을 스스로 '작명가가 아닌 '네임 디자이너' 또는 '이름 분석가'로 규정한다.

분석 대상은 사람 이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이름과 영어 이름, 법인명, 브랜드명, 제품명, 반려동

물 이름까지 분석 영역을 넓혔다. 특히 내국인에게는 한글 고유음의 음운과 리듬을 살린 이름을 적극 추천하며, 글로벌 환경에 맞는 네이밍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황 원장은 방송과 출판 활동을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MBN <친가뉴스>, tvN <식스센스> 등에 출연해 이름분석학 이론을 소개했으며, 저서 『황시현의 이름 이야기』를 통해 이름에 담긴 성격과 운명의 상관관계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한편, 황 원장은 '한국이름분석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다년간의 임상 상담과 사례 연구를 통해 이름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사례로 축적해 왔으며, 자녀 성향·진로 상담부터 초기 창업자를 위한 브랜드 네이밍까지 실무적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